



노인이면 어르신이 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말한다. 인생을 3단계로 나누면 초년(1세~30세) 중년(31세~60세) 말년(60세 이상)으로 구분하며, 인생을 4계절로 나누면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로 나눈다. 황혼에도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괴테는 노년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라며 사람은 늙어가면서 "건강, 돈, 일, 친구, 꿈"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이다.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상실한 빈손이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을 나이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다. 환갑이 넘으면 노인이라 부르던 시대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노인은 65세 이상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늙어간다. 육체는 각 기능이 퇴화하고 변해 약해지며 정신은 기억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것으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늦출 수는 있다.

나이가 든 늙은 사람을 늙은이 노인이라 하며 어른이라 부르는데 노인과 어른과 어르신은 각각 다르다. 나이가 든 늙은이는 모두가 노인의 범주에 속한다. 노인 중에서 어른이란 말을 듣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늙은이다. 어른 중에 어르신은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 남에게 도움을 주며 존경받는 늙은이를 어르신이라 한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그냥 노인 취급만 받고 늙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른이란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을의 어르신이란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

노인과 어르신을 비교해본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 지지만 어르신이 많으면 윤택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되는 사람이 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대답을 해 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괴테는 노년의 삶을 건강, 돈, 일, 친구, 꿈을 상실하는 삶이라 했지만, 노년이 되면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배플면서 사는 존경 받는 어르신으로 늙어가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맞이하게 될 노년이 되어가면서 괴테의 말을 가슴속에 품고 음미하며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황혼도 풍요로울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고 내가 노인에 접어들었다면 어르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나는 분명 이 사회의 진정한 어르신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후를 어르신으로 살았으면 한다.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 강력 단속으로 뿌리 뽑아야

김도연 나주경찰서 금천파출소 경감

현재 국내 건설사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약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건설현장은 악질적 불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별 이권개입, 입찰, 하도급 관련 각종 금품수수, 자재 빼돌리기, 폐쓰기식 집단행동,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생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유사한 불법행위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약 200일간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금까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통해 지난 2월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을 송치(구속 20명)하였고 1,535명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만큼은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속 수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는 ▲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 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 불법 집회·시위, ▲ 보복행위 등이다.

건설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각종 건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 경제적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저질 건축자재 사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또한,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관계기관의 유착여부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국번없이 112)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이제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은 신고요원화가 되어야 하며 경찰과 검찰은 합동하여 다시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때이다.

칼럼

최고의 구조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

박제수 여수해양경찰서장



바다는 아름다운 낭만과 함께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써의 현상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안전 및 해양주권수호를 책임지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가 인해 중요시설과 대단위 석유정제공장 및 많은 저장시설 등이 밀집된 여수·광양항은 대량의 기름 및 위험 유해 물질 유입이 빈번한 곳으로 여수해경은 그 어느 지역보다 해양오염 노출이 많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는 총 23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3건이 선박 유류 이송 작업 중 관리 소홀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특히, 유류나 화학제품 등의 위험물 운반 선박과 다중이용선박 등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강도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더 불어 해양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5일 저녁 7시 5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남서방 12.9km 해상에서 6,400톤급 화물선 A호(부산선적, 승선원 13명)와 140톤급 기선권현망 운반선 B호(여수선적, 승선원 13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승선해 있던 선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경비함정을 이용, 육지로 긴급 이송돼 119구급대에 인계되었고, 화물선과 어선은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주의를 사소히 함으로써 주변을 경계하지 않은 운항자의 부주의에 의한 전형적인 사고다. "살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평소 자주 다니는 바닷길이나가 관찮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은 해상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안전한 바다 구원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방제,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제, 섹터 관리제, 고위험 선박 집중관리제와 취약 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등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정책에도 해양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임버릇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의 구조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신속한 구조와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구조라는 것이다.

"깨진 불도 다시 보자" 말처럼 "나의 최고의 안전은 사전 예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다는 우리가 마음껏 놀고 즐기며 생산할 수 있는 더욱 더 친숙한 공간이 될 것이다.

기고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러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